



보도시점 2024. 9. 27.(금) 배포 2024. 9. 26.(목)

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D-25, “행사 준비 계획대로 착착”

26일 재외동포청장 주재, 대회 추진상황 합동점검 회의 개최

- 9월말 현재 해외바이어 750여명 등록, 대회전까지 바이어 포함 참가자 수 지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
- 기업전시관 330여개 전시 부스 마련, 일대일비즈니스미팅에 400여개 기업 신청
 - 참가자들 안전, 편의성 최우선 고려한 대책도 집중 점검
 - 재외동포청장 “대회 참가자들 성과 거둘 수 있도록 내실있게 준비”
- 전라북도특별자치도지사 “중요한 손님맞이를 앞두고 있는 만큼 사소한 부분 하나하나 다시 점검”

□ 재외동포청은 오는 10월 22일부터 24일까지 전주 전북대학교에서 개최될 제22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9.26(목) 인천 연수구 소재 재외동포청에서 이상덕 청장 주재로 합동 점검회의를 열었다.

○ 점검 회의에서는 대회 주최기관인 재외동포청을 비롯해 전라북도 특별자치도 등 공동주관기관 및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회 전반의 추진 상황을 꼼꼼히 살폈다.

○ 이상덕 청장은 금번 대회가 지난해 6월 재외동포청 출범 이후 처음 국내에서 치러지는 대회로, 성공 개최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.

□ 금번 회의에서는 9월말 현재 △참가 등록 현황과 함께 숙박, 교통 등 대회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확인했고, 개.폐막식, 각종 프로그램 등의 운영계획도 점검했다.

- 특히 대회 핵심 프로그램 중 하나인 △기업전시관의 준비 현황은 물론 참석자들을 위한 △안전대책도 다각적으로 확인했다.

- 9월말 현재 해외바이어는 750여 명이 등록을 마친 상황으로, 대회 전까지 바이어를 포함해 셀러, 일반참관객 등 참가자 수는 지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.

- 한편, 대회의 핵심 프로그램 중 하나인 기업전시관은 10월 중순 완공 예정으로 기업전시관 내 전시부스는 330여 개가 마련되며, 일대일 비즈니스미팅을 신청한 기업도 400여 건에 달하는 등 참가 기업인의 관심도 크게 집중되고 있다.

- 아울러 참가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안전관리계획을 비롯한 전북대학교와 기차역, 버스터미널, 숙박시설 등 주요 시설을 연계한 교통 대책과 참가자 숙박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체크했다.

□ 이상덕 청장은 “계획대로 준비가 착착 진행되고 있다” 고 평가하면서 “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” 고 다짐했다.

- 이어 “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가 재외동포기업인과 국내 중소 기업인에게 명실상부한 글로벌 네트워킹의 장(場)으로 자리매김한 만큼, 무엇보다 대회에 참가하는 기업인들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준비할 것” 이라고 강조했다.

□ 한편,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대회를 약 한 달 앞두고 성공 개최를 위한 만반의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“중요한 손님맞

이를 앞두고 있는 만큼 사소한 부분 하나하나 다시 한번 점검해 나가겠다”면서, “전북특별자치도를 방문할 재외동포들과 기업인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.” 라고 말했다.

-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는 전 세계에 거주하는 한인 경제인들이 한 자리에 모여 비즈니스 기회를 모색하고, 모국과의 교류를 강화하는 글로벌 행사로서, 재외동포청은 해외 진출을 원하는 국내 기업인들과 재외동포 기업인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동 행사를 매년 개최하고 있다. 끝.

담당 부서	재외동포청 동포경제인네트워크과	책임자	과 장 이 경 아	032-585-3220
		담당자	사무관 황 인 용	032-585-3293
담당 부서	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전북특별자치도사무국	책임자	사무국장 한 승 룡	063-280-4950
		담당자	팀 장 이 광 수	063-280-4955



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
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·의원으로

